coupang newsroom

[보도자료] “지자체 협력 전국 확대해 파트너 지원 강화” 쿠팡이츠서비스, 서울 도봉구와 ‘배달파트너 안전지원’ 업무협약 체결

2025. 7. 28.

- **CES, 서울시 도봉구와 배달파트너 안전환경 지원 및 문화조성 위한 업무협약**
- **이륜차 무상 안전점검 및 소모품 교체 행사 등 실효성 높은 다각도 지원**

2025. 07. 28. 서울 - 쿠팡이츠서비스(CES)가 서울시 도봉구와 배달파트너의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25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쿠팡이츠서비스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도봉구와 합심해 배달파트너의 안전한 배달환경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 활동들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비 전문가의 체계적인 정밀점검을 받을 수 있는 △이륜차 무상 안전점검 및 소모품 교체 행사를 필두로 △안전주행 문화 정착 캠페인 △안전교육 프로그램 △배달파트너 쉼터 물품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칠 예정이다.

CES는 혹서기 배달파트너의 안전을 위해 창원특례시, 경기도, 서울시 강남구·금천구 등 전국 여러 지자체와 협력해 실질적 지원을 확대 전개 중이다. 폭염과 폭우 등 사전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무상 안전점검 및 소모품 교체 행사’를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13개 지역에서 진행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배달파트너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전국 28개 쉼터에 생수·이온음료 등 무더위에 즉시 활용 가능한 안전물품들을 제공했다.

이 외에도 현장의 배달파트너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을 위해 CES는 아이스커피 교환 쿠폰 13만여 개를 쿠팡이츠 배달파트너에게 지원했다. 그간 진행해온 생수 지원 규모만 해도 2022년부터 누적 166만여 개에 달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온라인 배달 산업 종사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협약이 안전한 배달환경 확산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는 “쿠팡이츠서비스는 앞으로도 여러 지자체와 협력해 배달파트너의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에 힘쓰며, 현장에서 실효성이 높은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